

현길언의 〈벌거벗은 순례자〉 연구

문 용 식(충신대학교)

1. 머리말

본자는 〈벌거벗은 순례자〉에 나타난 욕망 치료로서의 구원의 서사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작품은 인간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욕망이 꿈틀거림, ‘욕망의 진행적 투쟁성’(우찬제: 1994, 20)을 거쳐 ‘대응 욕망’을 독자에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 작품에 나타난 주인공의 주체 형성 과정과 그것이 실제의 삶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를 욕망이라는 코드로 읽어보고자 한다.

2. 타자의 관여하기

〈벌거벗은 순례자〉는 남녀간의 결여가 없는 이상적 유토피아가 가능하다고 설파하며, 도덕적 완벽함을 추구하고자 했던 한 남자가 “성 관계는 없다”¹⁾는 것을 깨닫는 가운데 대응 욕망을 발견하는 이야기이다.

먼저 줄거리를 보면, 주인공 백치선은 아내 주정애와 도덕적인 완벽한 사랑으로 맺어져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스스럼없이 얘기하는 윤리 실천 운동가이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 달리 아내는 젊은 시절에 한 남자와 잠자리를 한 사이였다. 물론 아내는 혼전에 서로 사랑해서 잠자리를 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백치선은 아내가 혼전에 순결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쉽게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결혼 전까지 서로에게 정조를 지켰다고 방송에서 말했기 때문이다. 이후 백치선은 아내에게 불신감을 감추려 하지만 쉽지 않다. 아내도 죄책감 때문에 기도원으로 들어간다. 깊은 고민에 빠졌던 백치선은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부부 간의 사랑을 우진아라는 방송인과 성적인 욕망으로 해소하려 한다. 행복했던 가정은 일순간 와해되고 딸 경연이는 엄마를 용서하지 못하는 아빠를 원망하기에 이른다. 그 뒤 백치선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 위해 산행을 떠난다.

산행은 곧 자신을 돌아보는 순례자의 길이다. 그 길에서 백치선은 일상에서 벗어나 세속에 묻혀 있던 자신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며 자신의 신념을 반성한다. 순례의 길에서 만난 현훈 목사에게서 목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백치선은 자신의 윤리적 믿음보다는 가족에 대한 인간적 믿음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또한 서자였던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를 큰마음으로 감싸주었던 큰어머니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이해하게 된다.

이 작품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주인공이 생각하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로 인한 갈등이다. 갈등의 요체는 늘 다른 여성을 원하는 배신행위(incest)가 남성에게 있고, 또 여성에게도 늘 다른 남성을 원하는 배신행위가 있다는 것을 감추고 도덕적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주인공과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대중 사이의 긴장 관계이

1) 라캉의 유명한 공식, “성 관계는 없다”가 나타내는 의미는 남녀간의 성 관계에서 절대적 성 관계는 없다는 뜻으로, 성 관계에서 절대적 만족을 찾는 것은 하나의 이상일 뿐이라는 것이다.(이유섭: 1999, 18) 따라서 라캉의 공식이 의미하는 바는,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관계, 둘 사이의 결점을 보완해서 완전한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환상일 뿐이라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다. 거기에 대해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자, 주인공은 더욱 혼란스럽기만 하다. 주인공이 재현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야망이 아내로 일순간 무너지자, 그는 이상과 현실의 모순을 깊이 인식한다.

그 모순된 세상을 깊게 인식하면서 주인공은 소외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자신의 아내였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얼마 전까지 아내는 백치선의 '내밀한 타자성'²⁾으로 기능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 작품은 타자의 관여를 통해 상상적 실제계를 외치던 주인공이 윤리적인 선만으로 현실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것은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사고가 삶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어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이 작가는 '이상화하는 것에 가까운' '완전한 남녀 관계'를 지향하는 "요구"(demande)가(페터 비트머: 1998, 87) 상징계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타자의 관여를 통하여 주인공 백치선이 순례의 길을 나설 수밖에 없는 과정을 살펴보자. 주체는 항상 자신이 의미의 장소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 때의 주체는 보이지 않는 빈 곳인 상상화된 장에서 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초기에는 거울이 상상화의 작업을 대신함으로써 주체는 그가 보는 것이 그 자신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인식을 하게 되면서 주체는 거울에 비친 모습이 거짓임을 알게 되고, 자신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그리하여 주체는 타자로부터 자신의 의미와 뜻을 찾게 된다.(페터 비트머: 1998, 83) 따라서 주체를 바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타자가 주체에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작품에서 타자의 관여는 악과 선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악의 관여로써 보이지 않는 타자에 의한 폭력이다. TV에 고정 출연하여 도덕 운동을 전개하는 백치선은 보이지 않는 목소리를 통해 비난을 받는다. 그 폭력은 아내에게 젊은 날 상처를 주었던 정치호라는 정치인의 목소리를 통해 극대화된다.

① 어머니 고통도 전화로부터 시작되었다. 얼굴 없는 목소리의 폭력이 어머니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던 것이다.(p. 23)

② 그들 부부는 시청자들 귀와 눈에 익숙해지면서 차츰 얼굴 없는 힘에 짓눌리게 되었다.(p.76)

①은 백치선이 도덕정치를 통해 정계에 발을 내딛을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정치호가 백치선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하룻밤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부분이다. 보이지 않는 폭력에 시달리던 아내는 급기야 과거의 문제로 인해 내적인 갈등을 겪고, ②에서 보는 것처럼 부부의 관계가 급이 가고, 결국 이들 부부는 정신적인 위기 상황에 이르게 된다. 악의 관여가 삶의 일상성까지 파괴한다.

2) 《라캉: 위상학적으로 말하기 *Lacan: Topologically Speaking*》(2004)의 서문을 쓴 래글랜드 교수는 라캉의 토폴로지가 “인간의 정신 생활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적인) 역설의 기능에 의해 야기되는 복잡성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라캉의 위상학적 접근은 ‘두 가지 의미 체계’ 문제와 직결되는데 첫째는 재현 체계이고, 둘째는 언어 속에 욕망·환상·(부분적) 욕동을 위치시킴으로써 언어를 물질화하는 리비도적 의미의 주이상스 체계이다. 라캉은 이 글을 통해 재현계와 비재현계, 혹은 상징과 실제의 모순어법적 ‘외밀한’ 위상 관계, 다시 말해서 상징적 구조에 내재하면서 그것에 환원될 수 없는 실제의 타자적 존재성, 즉 실제의 ‘내밀한 타자성’에 대해 언급한다. 박찬부, 《라캉: 재현과 그 불만》, 문학과 지성사, 2006, p. 296.

아내의 갈등은 곧 주인공인 백치선의 내적 갈등과도 연결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실재의 내밀한 타자성이었던 아내는 백치선이 꿈꾸고 있는 윤리적 실천 운동의 신뢰관계였기에, 언론을 통해 누누이 밝혀 온, 그들의 정조론은 더욱 타격을 받고 있다. 우리 시대의 양심과 지성으로 칭송받았던 백치선은 자신의 윤리적 실천 운동이 아내로 인해 깨지게 되자,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신마저 파멸시키고 만다. 마치 방송을 하러 가는 길에 교통 체증으로 “전혀 대책이 없는 혼란 앞에 자신이 무력함을 깨닫는.”(p. 43) 것처럼 말이다.

첫 사내의 추억을 영원히 아름다운 것으로 간직하고 있는 여자. 정결함을 가장한 음탕함. 음탕함을 은폐하려는 가짜 사랑, 치선은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고 가슴이 뛰었다.(p. 106)

위의 인용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백치선은 급기야 아내를 음탕한 여자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는 사랑을 외쳤던 아내의 목소리를 가짜라고 생각하며 악의 목소리에 이끌려 욕망의 늪으로 빠져 간다. 그 늪은 우진아라는 여자이다. 그녀는 백치선과 방송 프로그램을 같이하는 여자이다. 그녀는 백치선의 도덕적 완벽성에 이끌려 좋아한다기보다는 남을 포용하는 흡인력에 이끌려 좋아하게 되며, 어떤 남성이든 손아귀에 넣는 그런 수법을 사용하는 여자이다. 아내와의 사이가 나빠지자 백치선은 그녀와의 관계를 통해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왔던 믿음과 신뢰의 정조를 넘어 양심에 어긋난 죄를 범하게 된다. 백치선에게 있어 아내가 믿음에 바탕을 둔 실재의 내밀한 타자성이었다면, 우진아는 백치선 내면에 잠재해 있던 욕망에 바탕을 둔 내밀한 타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백치선은 우진아를 통해 본능적 욕망에 눈뜨는 한편,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욕심”(p. 62)이라는 그녀의 말을 듣고, 인간 관계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우진아 : 사람과 사람과의 도덕이나 윤리 문제는 신과의 관계보다 먼저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가 불완전하면, 눈에도 안 보이는 신과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백치선 : 사람들은 피차 불완전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제대로의 관계 정립이 어렵지요. 그래서 신을 찾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신은 눈에 보이지마는 눈보다 더 가까운 우리 심장 한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자신의 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인다면 그 분은 항상 만날 수 있지요. (p. 164)

위의 백치선과 우진아와의 대화를 통해, 백치선이 자신의 신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기도원에 들어가 있는 아내처럼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그는 인간의 불완전성을 인식하고 윤리와 욕망 사이의 복잡성에 눈을 뜬다. 그는 아내의 결핍을 통하여 욕망의 넘침을 경험하게 된다.³⁾ 그는 자신의 근본적 정념성을 경험하면서 분열된 주체로서 선다.(알렌 카 주판치치: 2004, 61)

다른 여성을 원하는 배신행위는 백치선이 믿었던 정조의 반대편에 위치한 부정적인 윤리

3) 라캉은 “법이 실패하는 곳에서만 원인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려면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법을 말하면 된다. 그러나 라캉의 경우 법의 실패가 원인의 존재를 담보한다. 따라서 ‘욕망의 원인’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언제나 주체와 대타자 사이에서 드러나는 어떤 ‘넘침’이나 ‘부족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의미화 고리의 차원에서 포착될 수 없는 어떤 ‘결핍’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박찬부, 앞의 책, p. 298.

이다. 주인공이 내적 갈등을 겪으면서도 정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용서보다는 도덕적인 신념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딸 경연이가 염려할 만큼 위험한 것이었다.

① 아버지의 도덕적 우월 의식, 인간에 대한 지나친 신뢰, 아니 그것은 어쩌면 아버지 자신이 굳게 지켜 온 유일한 신념이었을 것이다.(p. 20)

② 인간도 신처럼 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p. 27)

③ 엄마는 아빠께 너무 맹목적이세요. 그렇다고 제가 아빠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완벽을 추구하시는 아빠가 싫고 두려워서요. 완벽은 불가능한데, 그것을 생각하다보면 형식논리에 빠지기 쉽거든요.(p. 39)

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딸조차 아버지의 윤리적인 맹신이 현실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주의라고 비판한다. 딸이 아버지를 비판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완벽함이 진실로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②처럼 백치선은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고 인간 또한 신처럼 완벽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리하여 ③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간의 보편적 현상들을 간과하는 형식적인 오류를 범함으로써, 아내에 대한 믿음이 깨어진 후 죄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여기서 작가가 악이 최초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우리에게 전수된다는 점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악과 반대되는 선에 의한 타자의 관여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현훈 목사에 의한 구원 과정으로써, 현훈 목사는 주인공이 순례의 길에서 만난 조력자라 할 수 있다. 현훈 목사는 용서와 화해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는 인물로, 주인공과 비슷한 길을 걸어 왔던 인물이다. 세속에 있었던 죄를 고백하는 현훈 목사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훈 목사가 신학의 길로 접어들게 된 배경 또한 사회적으로 악을 행한 범죄자의 삶의 변화를 보면서부터이다. 물론 현목사는 보이지 않는 제도적 폭력에 희생된 후 욕망의 넘침을 경험하면서 삶의 도피처로써 목회자의 길을 들어섰지만, 그 이면에는 아내에 대한 윤리적 죄스러움 때문이라는 여운이 짙게 깔려 있다. 현목사의 이야기를 듣고, 백치선은 아내도 현훈 목사처럼 내면적 갈등을 겪으면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그리고 그는 아내와 가족에 대한 용서와 사랑의 의미를 조금씩 깨닫게 된다. 그것은 자신이 인식하고 있었던 악이 죄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악이 선으로 가는 성찰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과 의례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일종의 속죄양 의식을 거치면서 사랑이라는 큰 윤리에 도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는 현목사에게서 법의 판결이나 윤리적 틀이 인간이 만든 사유와 질서에서만 유효한 방편이며, 선과 악의 문제는 인간의 몫이 아닌 절대자의 몫임을 배우게 된다.

왜 야훼께서는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면서, 선악을 구별하는 그것만은 유보해 두셨는가 알겠구먼. 선과 악의 판별은 전적으로 절대자의 몫인데 말야. 그렇다면 법관의 판결도 결국 절대자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한데.(p. 125)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사람의 주체는 타자와의 관계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아무리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외쳐도, 실재계는 ‘즉자적 존재’(being-in-itself)로서 현상과 이미지의 영역 너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극복할 수 없는 영원한 한계성을 지닌다.(손 호머: 2007, 153, 169) 하지만 주체는 타자와의 관여를 통해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욕망이 있다는 것과 욕망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3. 욕망에 대한 성찰

자신의 도덕적 완벽함과 상상계의 타자인 아내에 대한 믿음이 깨어지자, 백치선은 자기 분열의 과정을 겪는다. 아내의 사랑을 믿었던 타자 안에서 자신을 오인(mis-recognition)함으로써 주체인 주인공은 상징계에 편입하면서 소외를 겪는다.⁴⁾ 그리고 지금까지의 사랑은 자신의 생각만을 앞세운 이기적인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분리는 주체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소문자로 된 타자(other)인 아내도 경험한다. 아내는 보이지 않는 폭력에 시달리며 과거의 덫에 걸려 있다. 현실의 냉혹함을 기도를 통해 극복하려 하지만 그것은 실재계가 아닌 가상계에 의지한 처절한 구원의 몸부림일 뿐이었다. 백치선의 아내로 최선을 다해 살았던 그녀는 주체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새였다. 과거 남자의 전화로 인해 상징계에서 불안을 경험한 그녀는 죽음까지도 생각할 만큼 분열되어 있었다. 남편과 하나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믿음이 깨어지면서 소외와 분리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부부 간의 믿음에 금이 가게 한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심한 자책에 빠져 내면적 양심에 흔들리고 있을 때, 그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인 아닌 남편임을 인식한다. 그러나 그것 또한 오히려 남편에게 짐을 던져주는 것임을 깨닫고 괴로워한다.

이것이 큰어머니의 삶의 논리가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남편에 대한 헌신은 그러한 두 시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삶의 지혜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창작품은 아닌가? 혼전정사의 부끄러운 이력을 스스로 잊어버리면 숨길 수 있는 비법을 거기에서 찾았던 것이 아닌가? 그것이 차차 남편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으로 변했을 것이고, 스스로 내 부끄러움의 굴레를 벗어나려는 탈출구가 되었을 것이다. 그녀는 차츰 모든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졌다. 도대체 내 정체는 무엇인가.(p. 96)

여성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이 언어구사를 통해 그의 상상과 환영을 충족시키는 상징적 질서에 묶인 타자, 남성을 위한 기표가 된다. 여성의 침묵의 이미지에 그 상상을 강요함으로써 여성의 위치는 의미의 창조자가 아닌 의미의 매개체로 여전히 묶여있는 것이다.(로라 멀비: 1993, 51)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단순한 의미의 매개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아내는 신뢰가 바탕이 된 부부였기에 남편과 사랑을 가꾸어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 그것은 라캉이 표현한 “하나(일)가 존재한다(Y a d'Un).”(라캉: 1974, 12)에 대한 믿음이요, 사랑받는 것이란, 항상 타자와 하나가 되고 싶어 하는 똑같은 주체이기 때문이다.

4) 라캉의 관점에서 보자면 ‘소외는 운명이다.’(술레: 1995, 49) 우리는 언어를 벗어날 수 없으며 언어는 상징계 안의 특정 위치에 우리를 각인시킨다. 주체는 사랑의 결핍을 통하여 상징계에 도달하면서 자기소외를 경험한다.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그 한계가 정말 애매하네요. 인간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인간에게 우선 고백하고 용서를 빌기 전에 주님께만 자복해도, 진정한 회개가 되겠느냐 말입니다. 인간에게 고백함으로 당해야 할 부끄러움이나 그에 따른 추궁이 두려워서, 몰래 주님께만 자복했다면,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될까. 물론 용서함은 주님께만 받을 수 있겠지만, 용서는 우선 그 죄와 관계된 인간에게도 구해야 할 것이 아닌가? 어쩌면 제가 지금까지 남편 앞에서 제 과거를 고백하지 않고 주님께만 고백했다는 것은,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서, 기도원을 내려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제 남편에게 용서를 빌고, 다시 주님께 용서를 구하려고 합니다.(p. 140)

아내의 기도원 생활은 자기 성찰의 공간, 용서와 화해를 인식하게 되는 공간으로써 백치선의 산행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일상을 벗어난 두 공간 속에서 부부는 ‘별거벗은 순례자’의 모습으로 주체의 실존적 물음뿐만 아니라 가족의 의미와 사랑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한다. 이것은 분리에서 철저한 자기 소외의 과정을 거쳤기에 가능한 일이다. 다시 말하면 아내는 ‘타자의 욕망 안에서 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지점에서 자신을 타자의 욕망으로부터 구별해 낸 것이다. 그리고 아내는 욕망의 원인/대상(object0cause of desire)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을 한다.

백치선 또한 주체의 복귀 과정이 아내와 흡사하다. 아내와의 결핍을 백치선은 우진아와의 성적 유희를 통해 채우고 있다. 그리하여 주체는 계속 결핍된 존재로 남아있게 된다.

① 그는 긴장과 고독과 정욕이 뒤얽혀진 혼돈의 늪으로 가라앉았다.(p. 166)

② 몇 달 사이에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놓은 탑이 와르르 한꺼번에 무너져 버렸다.(...)그의 삶의 지주가 통제로 흔들리다가 쓰러져 버렸다.(p. 170)

③ 이 겨울에 내 몸을 지탱해 주는 뼈들이 다 푹푹 얼어서 그것이 다시 부서져 가루가 되고, 살점들은 너털너털 흔들흔들 부패하다가 결국 가벼운 바람에도 흔적 없이 날아가 버릴 테지. 흔적도 없이. 바람에 날리는 깃털보다 가벼운 내 혼.(p. 171)

위에서 보듯, 주체는 혼돈을 경험하고, 지주가 흔들리며, 뼈들까지도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린다. 백치선은 자기 분리의 과정으로 타자와의 욕망을 끌어들임으로써 주체를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바람에 날리는 깃털보다 가벼운 공허한 주체는 결핍을 메우려고 한다.

〈별거벗은 순례자〉에서 백치선이 겪는 주체의 결핍 과정은 그의 아버지가 겪어 온 삶의 행적과 연결되어 있다. 두 아내를 둔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권위를 잃어버린 채 가족에게서 분리된 모습을 보였고, 백치선도 아내의 과거를 알고 난 뒤 부친처럼 가족에게 분리된 위치에 놓였다. 백치선도 아버지처럼 욕망하는 주체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족에게 분리를 경험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백치선과 그의 부친은 같지 않은 면이 있다. 백치선은 순례의 길을 통해 용서와 화해를 배워 참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되지만, 아버지는 가족과 분리된 자아로서 가장의 역할마저 등한시하였기 때문이다.⁵⁾ 이렇듯 백치선은 그의 부친과 연결이

5) 라캉은 후기 작업으로 가면서 ‘자아의 무의식’이 부모의 모습과 일치하는 것으로 형성된다는 프로이트의 관점을 가설의 정초로 삼는다. 즉 무의식의 형성은 어머니의 모체에서의 분리로부터 점차적

되어 있지만 부친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분리된 자아로서의 욕망에 대한 성찰은, 동일시할 타자의 이미지 속에서 주체를 찾는 길이기도 하다.(이유섭: 1998, 231) 결핍으로 시작된 육체적 욕망의 탐닉은 윤리적인 자아가 쾌락자아로 넘어가는 과정이며, 그 과정을 거침으로써 백치선은 아내와 동실시 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산행은 분리의 과정임과 동시에 실재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나무는 매년 봄을 다시 맞이하기 위해, 일부러 죽은 듯이 시들은 잎들을 떨어뜨려 버리고, 모든 욕망을 잠재운 채 한겨울을 쓴다.(p. 19)

가난하면서도 솔직하게 자기를 다 드러낸 산은 처음이었다.

설악에 대한 사람들의 찬탄은 결국 산이 아니라, 산이 입은 그 화려한 옷이었음을 치선은 비로소 알았다. (p. 172)

백치선은 산행을 통하여 이전에 가졌던 자신의 도덕적 신념과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자신이 추구했던 이상과 실재의 관계를 재인식하면서 이상을 넘나드는 실재의 문제에 좀더 접근하려는 자세를 갖는다. 그것은 보여진 현실이 아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인식하면서 주체의 실존과 본질을 탐색해 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은 결국 욕망하는 주체가 인간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으로, 이 작품에서는 ‘사랑’과 ‘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그것을 대변하고 있다.

욕망의 실현은 사랑과 성에 의해 구체화된다. 프로이트는 사랑을 성적 충동이 아니라 자기보존충동(Selbsterhaltungstrieb)으로 간주한다. 사랑이 전자아(全自我)와 관련되는 것이라면, 성적 충동은 부분적 충동(Partialtrieb)에서 표현된다. 자기보존충동은 현실자아와 순화된 쾌락자아로 나누어 설명되는데, 순화된 쾌락자아는 자기에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현실자아는 어떤 표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과 상응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표상된 것에 불과한지를 확정한다. 이 판단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페터 비트머: 1998, 111-112)

라캉에게서 쾌락자아는 현실을 구성하는 심급으로 자신에게 좋지 못한 것을 배척하며 내부와 외부를 구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현실자아는 현실을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즉 쾌락원리는 현실의 구성과, 현실원리는 쾌락의 추구하고 본질적으로 관련된다.⁶⁾ 산행을 하기 전 백치선의 모습은 쾌락자아가 현실자아를 앞서는 형국이었다면, 산행을 겪은 후에는 현실자아가 쾌락자아를 넘어서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과 동시에 심리적 에너지를 순화시키는, 즉 사랑의 힘에 도달하려는 형상을 보이고 있다.

백치선이 ‘성’이라는 인간의 존재 조건 하에서 이미 획득한 대상에 대해 거리를 취하는

으로 형성되며 아버지의 상징 질서에 편입하고 모방함으로써 주체를 형성해 나간다는 점에서, 라캉은 프로이트의 견해를 재해석하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그러나 프로이트가 명사적 개념으로써 무의식을 만들어 온 반면 라캉은 무의식이 인지의 객체일 수 없다고 믿는다. 그는 ‘무의식은 다른 담화의 실재적 장소가 아니다. 무의식은 원시적인 것도 본능적인 것도 아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 안에 암시되어 있다.’라고 주장한다. Maden Sarup, *Post-structuralism & Post-Modernism*, The Univ. of Georgia, 1988, p. 16. 박선경, 《현대 심리소설의 정신분석》, 계명문화사, 1996, p. 13 재인용.

6) 페터 비트머, 위의 책, p. 115.

이유는 인간의 성이 ‘욕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진아와의 성적 유희에 빠져 있으면서도 만족을 찾지 못하는 것은 ‘성’이 부정적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부분충동의 성적 진동은 주체의 활동성을 보여줌으로써 또 다른 체험을 찾고자 노력한다. 따라서 실재적 주체는 타자 속에서 자신을 재현하고자 욕망한다. 이 때 ‘성’은 상징화를 통해 비로소 현실 속으로 들어오며 상징화된 현실의 차원에서 성의 이상적 전형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된다. 특히나 윤리적 의식을 강조했던 백치선에게 있어 성은 단순한 존재가 아닌 고귀하게 다루어야 할 이상적 가치이다.

이 작품에서 성에 대한 인식은 백치선보다 경험적 고통을 더 겪었던 현훈 목사와의 대화를 통해 전개되고 있다. 현훈 목사의 불륜과 고뇌, 신학도로의 길을 가게 된 이유를 들으면서 백치선은 자신의 현 상황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사람은 누구도 성에는 장사가 없어요. 그렇게 신앙이 깊고 지혜로운 다윗왕이 순간적인 격정으로 부하 장군의 아내를 범한 그 사건이 이 점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나도 한 때 그 다윗의 사건을 성서에서 읽으면서, 다윗을 호색가로 매도했지요. 권력을 누리는 자들의 공통된 욕망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이제 나는 그러한 욕망이 인간의 일상적인 본성이라고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그것과 맞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피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러나 나는 내 알량한 도덕성을 무기 삼아 그것과 맞서려고 했으니, 애초부터 승부는 뻔했지 않겠어요?(p. 219)

성에 대한 거부는 오히려 정신적 에너지를 부정적으로 모음으로써 성에 대한 집착을 유발한다. 백치선 역시 인간의 일상적인 본성인 ‘성’을 고귀한 윤리적 가치로 인식하고 있음으로써 아내의 부정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욕망에서 벗어나고자 성을 거세하고자 했던 현훈 목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백치선의 ‘성’에 대한 인식은 변하게 된다. 이처럼 백치선에게 ‘성’은 인간이 수행하는 동일화의 모범적 대상으로써 열린다.

① 성에 대한 치선의 입장은 그런 대로 분명했다. 그것을 거세하는 것은 남성으로서의 자살이나 다름이 없다. 하나님은 창조해 주신 인체 가운데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 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인간에게 쾌락을 줄 뿐만 아니라, 이성애에 대한 사랑의 욕망을 갖게 함으로 결국 사랑의 원천이 되며, 그러기에 새 생명을 낳게 하는 창조의 원천이기도 하다. 아마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생명 다음으로 그것을 소중하게 만드셨을 것이다. 성을 소중히 생각하라는 것은, 그것이 단순한 이데올로기적 차원이 아니라, 성 자체가 인간에게는 생명 다음으로 소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했다니 그것은 자살과 같이 범죄이다. 인간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야 하는 나약하고 추한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목숨을 스스로 포기할 수 없는 것과 같지 않을까?(p. 242)

② 전 지금도 아내에게는 미안해요. 사실은 그 남성은 내 것만이 아니라, 아내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인데도 나는 내 것으로만 착각했지요. 또 하나 내가 저지른 큰 잘못은 성의 욕망을 내 의지에 의해 이겨보려고 했던 그 점이었소. 내가 극히 약한 존재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때문이지요. 주님께서 나를 이기도록 능력을 주실 때에만 정욕과 싸워 이길 수 있는데 내 힘만 믿고 그 성적 욕망과 대결했으니, 이미 성의 노예가 되어 있는 내가 어떻게 그 상전과 상대가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를 파괴함으로써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려고 했는데... 그 대가로 아내가 내게서 떠났지만 주님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내버려두시지 않으시고 다른 길을 열어 주셨어요.(p. 244)

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의 거세에 대한 백치선의 생각은 단순한 욕망의 거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그에게 성은 산행 이전에 생각했던 이상주의적 윤리 대상으로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성’은 생명의 원천임과 동시에 사랑의 원천이다. ‘성’은 자기애의 또 다른 이름이며 심리적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의 원천이다. 또 ②에서 보는 것처럼 백치선은 아내를 통해 ‘성’에 대한 바른 이해를 주님이 열어 주셨다고 말한다.

4. 욕망을 넘어서기

〈별거벗은 순례자〉에서 욕망을 넘어서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는 모습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큰어머니와 목사가 깨달은 것을 통해 사랑을 각성하는 깨달음의 길이며, 다른 하나는 종교적 자만심의 바람을 빼고 용서만이 살길이라는 주체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보이지 않는 얼굴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구원의 길이다. 이 두 양상은 각각의 모습으로 그 존재성을 드러낸다기보다는 후자가 선행되어야지만 가능하다. 즉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여백의 풍경은 단순한 비어있음이 아닌 보이지 않는 사랑에 기초한 믿음의 의사소통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주인공 백치선이 별거벗은 순례자의 길을 나서지 않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산행의 길을 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현훈 목사의 말과 큰어머니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현훈 목사는 백치선의 욕망 행적 궤도와 흡사하다는 점에서 세속적 사랑이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면, 큰어머니는 가족 간의 상처와 치유를 극복해 가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대변하고 있다. 그것은 백치선이 추구했던 윤리적 실천 운동을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구원의 길이다.

두 분의 어머니를 둔 백치선은 조카 경근에게서 숨겨진 어두운 가족사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서 큰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는다. 백치선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던 이복형, 백치선은 이복형의 아들인 조카 경근에게서 어두운 가족사를 큰 어머니가 주신 신앙으로 극복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어머니의 신앙에 기초한 사랑을 깨닫는다.

① 미움으로는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버지를 통해 확인했지요. 그래서 할머니 방법을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숙부님이나 할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제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차차 할머니의 마음과 그 신앙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p. 67)

② 치선은 불혹의 나이를 넘긴 조카한테서 큰어머니의 그 넓은 마음을 보았다. 자신이 아직도 이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것을 새삼 느꼈다.(p. 68)

미움은 받는 사람보다 미워하는 사람이 더 고통스러운 법이다. 그 미움을 이기는 방법은 ①에서 보듯 용서하는 길이다. 최초의 살인이 형제인 카인과 아벨 사이에서 일어난 것처럼 가족끼리의 불신은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 그런데 큰어머니는 당신의 남편을 빼앗아간 어머니에게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배려한다. 이것은 신앙에 기초한 사랑 없이는 불가

능한 일이다. 다시 말하면 큰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미움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인 것이다. ②에서 보듯, 백치선은 큰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 자신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인 조카의 넓은 마음을 새삼 느끼며 신앙에 기초한 사랑의 힘을 이해하게 된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부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다는 것이 큰 매듭이 되어 더 풀기 어렵게 되고 말았다.(...)서로의 과오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pp. 92-93)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 백치선은 아내에 대한 과오를 용서하고 상실한 사랑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는다.

또 참사랑의 모습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하는 현훈 목사에게서도 발견된다. 욕망을 거세하기 위하여 목회자의 길을 선택한 현훈 목사는 인간의 원죄를 씻어내려고 치절한 자기 갈등과 고난을 겪는다. 그리고 현훈 목사는 "주체가 증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역설적 만족"과) 신의 섭리를 깨닫는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 죄의 실체를 완전하게 판단하고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게 하는 데 인색한가를 의심하기도 했었지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어요.(p. 245)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 현 목사는 인간의 영역과 신의 영역이 다름을 인식하게 되고 선과 악의 구분은 인간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임을 알게 된다.

현훈 목사와의 만남을 통하여 백치선은 아내의 과오나 자신의 과오를 인간의 사유나 도덕 의식으로 판단하려는 것이 어리석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백의 풍경을 이해하게 된다.

넓은 버스에 앉아서 차창으로 스쳐 지나가는 텅 빈 시골 논과 밭들을 바라보노라니, 욕심을 버릴 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현훈 목사 말이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이 겨울들처럼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음을 의미하는가. 한 여름과 가을에 풍성한 것으로 많이 생산해 내고 그것을 다 남에게 내어주어 버리고는, 이제는 빈손으로 앉아서 돌아오는 봄을 기다리는 밭들은 도대체 어떤 심성을 지니고 있을까? 어린아이처럼 부질없는 생각이 떠올랐다. 텅 비어서 조용한 밭과 들이 결코 황량하게는 느껴지지 않았다.(p. 250)

백치선은 차창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면서 비존재의 존재성을 깨닫는다.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식한 것이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진정한 사랑의 울림을 깨달았을 때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한 것이다. 봄을 기다리고 있기에 텅 비어 있지만 황량하게 느끼지 않는 "실재인 맥동하는 정화된 심성",⁸⁾ 그 여백의 미학을 이해하게 된다.

7) 딜런 에반스, 김종주 외 역, 《라캉정신분석사전》, 인간사랑, 1998, pp. 431-432.

8) 알렌카 주판치치, 이성민 역, 《실재의 윤리》, 도서출판 b, 2004, p. 390.

백치선의 산행 순례는 아버지와 두 어머니가 모셔져 있는 묘소 앞에서 끝난다. 그곳에는 이미 그의 아내와 딸이 와 있었다. 가족 모두가 애증의 세월로 보내셨던 세 분의 묘소 앞에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의미를 인식하게 된다.

네 아내를 제대로 사랑하여라. 감정이나 정으로 사랑하지 말고, 큰어머님이 아버지를 사랑한 것처럼,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대신 채워줘야 그게 참 사랑이다.(p. 251)

위의 인용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주기를 넘긴 며칠 후 남기신 어머니에게 받은 말씀이다. 백치선은 가족들과 함께 구원을 얻은 분들 앞에서 서로의 미움과 상처를 치유하고 사랑하겠다고 약속하며, 용서하고 채우는 참 사랑의 공간적 깊이에 동참하겠다고 다짐한다.

이상에서 보듯, 백치선 부부는 상상계에서 벗어나 상징계의 중심에 존재하는 ‘불완전함’을 가족사를 통해 인식하는 동시에, 핑크가 말하듯 ‘더 나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나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더 나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손 호머: 2007, 169) 대타자를 만났던 타자의 관여를 통해 욕망을 넘어서서 참 사랑을 깨닫게 된다.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하다고 작가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5. 결론

이 작품은 백치선이라는 주인공을 통하여 인간의 본성적 문제와 그것을 극복해 가는 과정을 순례의 형식을 빌어 보여주고 있다. 현실에서 주체를 잃어버린 자아는 선과 악으로 대표되는 타자의 관여를 통하여 주체의 본질을 발견하기도 한다. 욕망을 유발하는 악의 관여는 보이지 않는 폭력을 통해 자신의 존재성을 드러내고, 이를 치유하는 선의 관여는 하나님을 통한 구원의 길에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주인공은 욕망을 성찰하기 위하여 순례의 산행을 나서는데, 그 길은 단순히 자신만이 행하고 있는 길이 아닌 아내가 가고 있는 길이며, 현훈 목사와 어머니께서도 갔던 길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성 욕망 때문에 고통을 겪지만, 성은 힘의 원천인 동시에 사랑의 원천임을 깨닫는다. 따라서 성의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보편적 문제로 확대되어 우리에게 다가온다. 주인공은 큰어머니와 현훈 목사가 보여준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에 욕망을 넘어서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그 구원도 타자의 관여를 통해 삶을 성찰한 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달을 때 진정한 의미의 용서와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